



KB스타즈 김가은(가운데)이 21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신한은행과의 경기에서 김연주(왼쪽)의 수비를 피해 레이업슛을 시도하고 있다. 인천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강아정 20점…KB, 연패 탈출

김가은·정미란 등 국내선수 고른 득점
18점차 신한은행 꺾고 5할 승률 복귀



KB스타즈가 국내 선수들의 활약으로 2연패에서 벗어났다. KB스타즈는 21일 인천도원체육관에서 열린 '삼성생명 2016~2017 여자프로농구' 원정경기에서 신한은행에 67-49로 이겼다.

두 팀은 최근 득점력 부재에 시달렸다. KB스타즈는 최근 3경기 평균 득점이 54.0점, 신한은행은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56.0점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외국인선수들의 부진이 크게 한몫했다. KB스타즈와 신한은행 모두 두 명의 외국인선수 득점 합계가 평균 20점(KB스타즈 19.9점·신한은행 15.2점)도 안 된다.

이날도 두 팀 외인들은 침묵했다. 차이는 국내선수 활약에 있었다. KB스타즈는 강아정(20점·5리바운드), 김가은(15점), 정미란(10점·6리바운드), 홍아란(9점) 등 국내선수들의 득점이 경기 초반부터 고르게 터졌다. 2쿼터까지 36-21로 앞선 KB스타즈는 3쿼터 시작 후 4분25초 동안 강아정과 김가은이 11점을 합작하는 등 12점을 추가한 반

면, 신한은행은 아득 불각(2점·7리바운드·4블록)의 자유투 1개로 1점을 올리는 데에 그쳤다. 48-22까지 달아난 KB스타즈는 4쿼터 초반 추격에 나선 신한은행의 공세에 시달렸지만, 승리를 지키는데 문제가 없었다. KB스타즈가 60점대 득점을 기록한 것은 지난 7일 삼성생명전(63-71패) 이후 4경기 만이다. KB스타즈는 4승4패로 5할 승률에 복귀했다.

한편 신한은행 김단비(17점·5리바운드·3어시스트)는 5개의 스틸을 추가해 개인통산 300스틸(역대20번째) 고지를 밟았다. 인천 | 정지국 기자 stop@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용병하기 나름’ 남자농구의 한계



최용석의 팀인

외국인선수 활약이 팀 성적에 직접
용병 부상 당한 kt·KCC는 하위권

‘2016~2017 KCC 프로농구’ 1라운드에선 외국인선수들이 각 팀의 성적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순위표를 보면 외국인선수들이 꾸준히 제몫을 한 팀들이 상위권에 자리 잡았다. 반면 외국인선수를 부상 등으로 일시 대체하거나 완전히 교체한 팀들은 고전했다.

1라운드 9경기를 기준으로 7승2패씩을 거둔 오리온과 삼성은 모두 외국인선수 2명의 좋은 활약 덕을 봤다. 삼성의 언더사이즈 빅맨 마이클 크레이크는 1라운드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기존 용병 리카르도 라틀리프도 여전히 튼튼한 몸으로 골밑을 단단히 지켰다. 오리온의 경우에도 한국형 용병 애런 헤인즈의 활약이 여전한 가운데 신임 용병 오데리언 바셋이 순조롭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6승3패의 동부도 외국인선수 전력누수가 전혀 없었다.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웬델 맥키네스와 로드 벤슨으로 새 시즌을 치르고 있는데, 벤슨의 몸 상태가 지난 시즌보다 월등하게 좋아 팀 전체가 탄력을 받고 있다.

반면 1라운드에서 2승씩(7패)을 거두는데 그친 kt와 KCC는 주축 외국인선수들이 부상으로 전열을 이탈한 까닭에 매 경기 고전했다. kt는 전제 1순위 용병 크리스 다니엘스의 부상이 장기화되면서 대체선수를 2차례나 불러야 했다. 게다가 다른 외국인선수 래리 고든도 적



‘2016~2017 KCC 프로농구’ 1라운드에선 마이클 크레이크, 오데리언 바셋, 웬델 맥키네스(왼쪽부터) 등 제 몫을 해준 외국인선수를 보유한 삼성, 오리온, 동부 등이 상위권에 자리했다. 반면 kt와 KCC는 주축 외국인선수의 부상으로 매 경기 고전했다. 스포츠동아DB·사진제공 | KBL

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팀 전체가 약화됐다. KCC는 사타구니 부상을 입은 에이스 안드레 에밋의 장기결장 속에 해결사 부재로 하위권을 전전하고 있다. 모비스와 LG도 마찬가지. 모비스는 크게 기대했던 네이트 밀러의 부상으로 땅을 쳤다. LG는 외국인선수 레이션 테리를 제임스 메이스로 완전 교체해 안정을 되찾는 듯했지만, 최근 마이클 이페브라마저 부상을 입고 말았다.

외국인선수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기록으로도 입증된다. 외국인선수들의 비중이 두드러진 공격을 매 경기 고전했다. kt는 전제 1순위 용병 크리스 다니엘스의 부상이 장기화되면서 대체선수를 2차례나 불러야 했다. 게다가 다른 외국인선수 래리 고든도 적

용의 오리온이다. 특히 외국인선수 2명이 동시에 출전하는 2~3쿼터에는 이 비중이 더 높아진다. 결국 외국인선수들이 얼마나 제 몫을 해주느냐가 팀 성과와 직결된다는 뜻이다. 매 쿼터 외국인선수 수가 1명만 출전할 수 있었던 2014~2015시즌에는 외국인선수들의 필드골 시도 비중이 30%대 중반이었다.

남자프로농구 관계자는 “용병 2명이 동시에 뛰게 되면 결국 용병을 어떻게 선발하느냐가 팀의 시즌 성적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외국인선수 2명이 뛰면서 화려한 농구가 가능해지고 팬들의 관심 또한 커졌지만, 결국 ‘용병하기 나름’이라는 남자프로농구에 대한 시각을 지울 수는 없을 듯하다.

스포츠1부 기자 gtyong@donga.com

박지수 부상에 KB스타즈 울상

‘발등 통증’…프로 데뷔 시점 불투명

대형 신인 박지수(18·195cm·KB스타즈)의 프로 데뷔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최근 태국에서 열린 18세 이하(U-18) 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 참가했던 박지수는 21일 귀국해 KB스타즈에 합류했다. 그러나 발등에 통증을 느껴 22일 정밀진단을 받을 예정이다. 검진 결과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경기 출전이 어려울 전망이다.

KB스타즈 구단 관계자는 “20일 우리 U-18 대표팀이 치른 대회 3·4위전을 TV 중계로 지켜봤는데, (박)지수가 경기 막판에만 잠깐 출전했다. 리바운드와 블록슛 등을 했는데, 많이 움직이



박지수

지 못하는 것 같았다. 걷는 데도 불편해 보였다”며 부상을 우려했다. 이어 “일단은 팀에 합류시킬 계획이지만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 지금으

로선 언제 데뷔전이 가능할지 예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골밑에 고민을 안고 있는 KB스타즈는 박지수가 U-18 대표팀에서 복귀하면 경기에 나설 수 있도록 서서히 준비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부상이 열려되는 만큼 KB스타즈 안덕수 감독의 구상도 차질을 빚게 생겼다. 안 감독은 당초

박지수가 돌아오면 1~2일 정도 폭 쉬게 하고, 팀 전술과 패턴 등을 지도한 뒤 27일로 예정된 KDB생명과의 원정경기 때 테스트를 겸해 출전시킬 계획이었다.

박지수는 뼈 또는 인대 등에 부상이 없다면 통증만 사라지면 곧바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경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면 프로 데뷔전을 치르기까지 예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박지수의 합류를 계기로 상위권 도약까지 꿈꿨던 KB스타즈로서는 당분간은 기존 전력으로 경기일정을 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용석 기자

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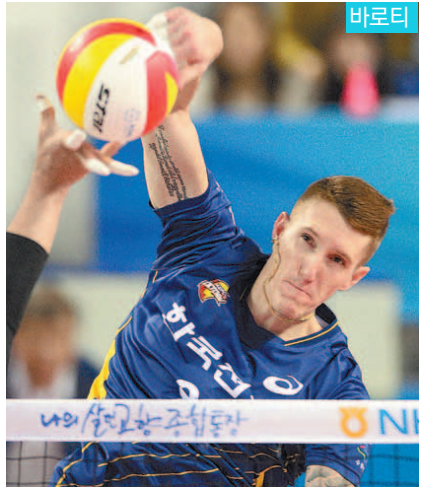
힘 뼉더니 득점력 UP…달라진 바로티

빈 곳 노리며 공격성공률 상승
2위 한국전력 4연승 일등공신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늘었죠.”

한국전력 신영철 감독은 요즘 외국인 선수 아르파드 바로티(25)를 보면 흐뭇하기만 하다. V리그에 첫발을 내디딘 2013~2014시즌(당시 OK저축은행) 극도로 부진했던 그가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팀이 최근 4연승을 달리며 2위(7승3패·승점 19)까지 올라간 데는 바로티의 역할이 컸다.

바로티의 변화는 5월 트라이아웃 때부터 감지됐다. 배구관계자들은 “바로티가 저렇게 잡히는 선수였냐”며 혀를 내둘렀다. 특히 서브의 정확도가 높아졌고, 토스에 관계없이 공을 컨트롤하는 능력도 인정받았다. 바로티 본인은 “경험이 쌓였고, 특히 서브가 좋아진 것 같다”고 자평했다. 한국전력은 3순위로 바로티를 품에 안았다. 신 감독은 “초반에는 (바로티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지



바로티

만, 지금은 생각대로 잘해주고 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바로티는 올 시즌 10경기에서 경기당 23.4득점(2위), 공격성공률 50.23%(10위)를 기록 중이다. 애초 들쭉날쭉한 플레이로 신 감독의 애를 태우기도 했지만, 팔이 길다는 장점을 심본 활용해 공격성공률을 높여가고 있다. 공격리듬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힘을 빼고 연타공격을 시도하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는 과거와 가장 달라진 부분

이다. 과거에는 상대 블로킹에 관계없이 무조건 세계 때리려고만 했고, 그러다 보니 상대 블로킹에 걸리기 일쑤였다.

올 시즌에는 다르다. 상대 블로킹과 수비위치가 따라 연타공격도 자주 구사한다. 후위에서도 힘을 빼고 빈 곳을 찾아 때리며 팀이 필요할 때 득점한다. 20일 수원 대한항공전에서도 그랬다. 매 세트 30%대 후반의 공격점유율을 기록하면서도 성공률은 62.11%(23득점)를 찍었다. 수비에도 적극 가담하며 팀플레이에 앞장섰다. “디그 후 득점 여부가 승부를 가른다”는 신 감독의 말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쉬지 않고 움직였다. 한 두 차례 공격에 실패하면 주축 들턴 모습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신 감독은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 리듬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세트의 토스를 천천히 따라가서 멀리 보고 빨리 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블로킹도 좀 더 보완해야 한다”면서도 “감독의 요구 사항을 잘 들어주고,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칭찬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위험한 배구장…허슬플레이 금지가 최선입니까?



취재파일

김영준 기자
gatzy@donga.com

‘A보드’ 선수 안전 담보로 광고 수입

스파이코 볼이 관중석으로 날아간 다. 수비하는 팀의 한 선수가 몸을 사리지 않고, 광고판을 향해 뛰어가 몸을 부딪히며 볼을 건져 올린다. 볼이 공격수에게 연결됐고, 블로킹 벽을 뚫은 이 단공격으로 멋진 득점을 올린다. 배구 보는 묘미인 이런 미기(美技)를 어찌면 보지 못하게 될지 모른다. ‘허슬플레이 금지규정’이 생겨날지도 모르는 판이다.

●수익과 안전 사이에서

KB손해보험 세트 양준식(25)은 17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다. 4세트 막판 집전 상황에서 수비된 볼을 살려내기 위해 다이빙 캐치를 시도하다가 코트에 설치된 광고판에 어깨가 충돌한 것이다. 그는 잠시 일어나지

못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배구 코트가 안전한 곳이 아님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LED 문자조명이 켜지는 광고판, 속칭 A보드는 V리그의 운영 주체인 KOVO가 담당하는 영역이다. TV 중계 화면에 코트를 비추면 바로 노출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는 곧 광고 유치를 통해 돈이 된다는 뜻이다. 배구계 관계자는 “한 시즌 동안 A보드 고정광고비로 7000만원을 투자하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숫자를 다 합치면 만만치 않은 수익원이 발생한다”고 증언했다. KOVO가 돈을 많이 벌면 V리그를 위해 좋은 일이다. 문제는 A보드가 선수 안전을 담보로 잡고 있는 현실이다.

선수가 서브를 넣는 뒤편에도 광고판이 있다. 그러나 이쪽에는 TV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기에 전선이 들어가지 않는 광고판을 사용한다. 이 때문에 스티로폼 재질을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주심과 부심 뒤쪽의 넓은 지역은 LED A보드 자리한다. 철, 플라스틱 등 단단한 재질이다. 배구 선수들은 언제든 선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흉기’를 곁에 두고 뛰는 상황이다.

●KOVO, “문제점 인식하고 있다”

KOVO가 수익에 눈이 어두워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KOVO 관계자는 “연맹 차원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대책은 실망스럽다. ‘A보드 뒤쪽으로 날아가는 공은 건져올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발상이 대표적인데, 위험하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다. 생업을 걸고, 경기에 몰입하는 프로 선수에게 허슬플레이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당위적으로도 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물론 KOVO가 국제 규격 A보드 설치물을 여긴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 코트도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것 역시 현실이다. 그러나 배구 선수는 KOVO의 자산이기도 하다. 아직 A보드에 충돌해 크게 다친 선수가 없다고 위안 삼을 일이 아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우리는 배구장 밖에서 뼈저리게 겪지 않았는가. 스포츠 2부 기자